

광양시·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 본격 추진

현 읍내지구대는 노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해 시민에 환원

광양시가 광양경찰서와 손잡고 읍내지구대를 확장 이전키로 했다.

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현복 시장과 장진영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현재 위치한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로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광양읍의 치안과 안전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최단 시간 내에 최상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구대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지구대 이전은 시에서 먼저 읍내지



구대 확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광양경찰서는 필요한 국비를

확보한 후 상호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전부지 마련부터 지구대 신축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까지 모든 과정을 상호 협력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읍내지구대가 이전하면 현재 읍내지구대는 인근 광양노인복지관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리모델링한 후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어 또 다른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협약식에서 “광양시민의 안전은 시장의 최우선적인 소임이며 행복한 일상의 출발이다”며,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를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읍내지구대 확장에 필요한 국비 확보 역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조준의 기자

순천만정원박람회 공사안내판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치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4월 22일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도심 속 공사현장 안내판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다.

이번 2023정원박람회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를 도심 까지 확산하기 위해 동천 주변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도심지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공사안내 간판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기존의 공사안내 간판은 전문 용어가 사용되고 획일적이어서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편함이나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사항을 무시한 채 공사현장을 지나기도 했다.

이에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공사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공사안내 간판을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왜 필요한지, 박람회장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등의 설명을 담았다. 실제로 오천동 동천변지류지에 설치되는 분화구정원은 박람회장 조성공사 개요, 공사계획도, 조감도 등 공사안내 간판이 그림과 사진으로 쉽게 설명돼 있다.

구례군, 여순사건 피해신고접수 참여 열기 높아

민관이 함께한 전략적 홍보활동 결과 괄목할 성과

구례군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으로 여순사건 신고 접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군은 11일 민관이 함께 노력한 홍보 성과로 여순 10·19사건 피해신고 접수 참여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저조한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관내·외를 아우르는 반회보, 전단지 배포, 이장회의 등을 통한 안내를 비롯해 지난달 개최한 지역 설명회 개최, 호소문 발송 등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활동결과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지난 1월 21일 신고접수를 시작한 후 3월까지 신고건수는 62건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후인 4월 미지막주부터 약 2주의 기간에 10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4일자로 구례군에 접수된 신고 건은 총 205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4월의 신고접수는 놀라울 만한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에도 전국 각지에서 신고에 대한 문의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건 이후 74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고령인 유족들이 많아 신고의 편리성을 위해 관내 거주자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관외 거주자는 구례군청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여순 사건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은 “최근 군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사건과 신고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것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군과 협력하여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품앗이 복지실현 ‘홈-클린사업’ 추진

이웃이 이웃의 주거복지 문제해결 나서는 품앗이 복지 실현

순천시가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집 청소에 어려움이 있거나 오랫동안 쓰레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시는 해마다 추진해오던 일회성 주거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클린(청소) 사업, 우량각시 사업과 시민참여를 연계한 ‘홈-클린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민체감형 복지사업

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클린(청소) 사업은 순천지역자활센터 ‘더 클린’ 사업단과 협력하여 특수청소·전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소가 마무리되면 우렁각시 사업을 통한 사후관리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홈-클린사업’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희자원봉사자를 통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여, 이웃의 문제를 이웃과 더불어 해결하는 품앗이 복지를 실현한다.

하게 된다.

특히, ‘홈-클린사업’에는 읍면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전남형 생활복지인력)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주민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일 왕조1동 장애인 세대를 시작으로 10일에는 서면, 18일에는 별량면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클린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조준의 기자

보성 녹차 DB 공공데이터 사업 추진

공공데이터 공모 사업 선정… 국비 3억 원 확보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군비 부담 없이 진행되는 이번 공공데이터 사업은 ‘차 문화 확산을 위한 보성 녹차 DB 구축 및 개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보성군은 여러 부서 및 기관에 산재한 녹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류별 녹차 데이터 7,700건, 오픈 API 10건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5월 중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수집·결합·가공·표준화·시각화·개방 과정이 진행된다.

12월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최종 결과물을 등록해 모든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녹차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녹차 DB를 완성하게 되면, 앱 개발,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관광·축제·체험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차 문화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고흥 ‘제4호 치매안심마을’ 운영 시작

과역면 내로마을에 문 열어

고흥군이 관내에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을 선정, 10일 현관식을 갖고 치매 초기진단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일상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치매 발병률 또한 증가한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치매가 단순히 환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을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합심하여 대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미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면단위 기관인 면사무소, 파출소, 학교, 우체국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이를 바탕으로 노인 친화적 환경 개선사업, 안전 환경 조성사업 등을 비롯하여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인식개선 홍보활동,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고흥=최혁민 기자

곡성 올해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

곡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도 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의 정책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통 시무에 대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5대 국정 목표 108개 지표(정량 87, 정성 21)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정량 지표는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 정성 지표는 지표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정량지표 73개 중 72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을 98.6%로 기록했다. 일반행정, 복지, 경제, 보건 등 전 분야에서 꼴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산사태 예방 대응 체계 구축률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되는 19개 정량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시가증치가 부여되는 가중지표 15개에서도 도내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우리군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꼼꼼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시책도 더 많이 발굴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상석 기자

Golden Rose Festival Season 2

제12회 곡성 세계(2) 축제

• 2022. 5. 21 ~ 6. 6. •

곡성섬진강기차마을